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kats.go.kr
2012년 2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신산업표준과 안종일 과장, 이상근 연구관(02-509-7295)	

아·태지역, 3D특허표준 협력 시동

– 돈이 되는 '입체영상 표준개발 포럼' 구성 –

□ 기존의 전통산업에 입체영상3D 신기술의 접목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3D융합산업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, 한국의 주도로 2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, 일본, 중국, 대만 등 아태지역의 5개국 3D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창출형 표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**'아태 3D표준&특허포럼'**을 구성하였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밝혔음

○ 표준과 특허 연계는 기업에게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**'돈이 되는' 표준화**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창출과 동시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

3D산업

2009년 3D영화 '아바타' 열풍과 2010년 3DTV의 출시로 입체영상3D산업이 태동되어, 년평균 120 %의 급속한 성장으로 2017년 100조원 시장인 '미래 신성장 동력산업'

□ 3D기술은 영상산업 뿐 아니라 의료, 교육, 게임, 광고 등 다양한 융합응용산업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, 정부에서는 **전략적 표준화**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○ (국가표준코디네이터) 3D산업분야에 표준코디네이터제도 도입으로 민간전문가(윤대원박사, 특허·표준전문가)를 영입하여 **국가표준로드맵 구축**에 따른 국제표준협력 강화와 특허 연계형 표준화 전략을 모색함

○ (WG신설) 사실상표준화기구인 IEEE(국제전기전자공학회)에 3D의료 작업반과 3D교육 작업반(WG)의 **신설제안** 등 3D표준화의 선도를 추진함

○ (정부지원)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하여 3D의료, 3D교육, 3D영화 등 3D융합산업분야의 **특허연계형 표준화**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

□ 한편, 각국의 특허와 표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**'표준과 특허의 조화'**라는 주제 하에 2월 24일 코엑스에서 **아·태지역 최초**의 '3D표준&특허 포럼 2012' 세미나를 개최함

○ 아·태지역 특허 및 표준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허풀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3D융합산업 분야의 **특허 연계형 표준화** 및 신규 특허풀 구성에 대한 해법과 그 **실천방안**을 모색키로 함

3D 세미나 내용

(미국) 의료·교육(이머슨社, 볼린스키 사장), 동영상압축기술(MPEG-LA 라이센싱社, 게리 부사장)
(일본) 동영상압축기술(동경과학大 후지노교수), 관절3D영상(오사카大병원 수기모토교수), 영상분석(큐슈大 김형섭교수)
(중국) 3D표준동향(중국3D산업협회 첸빈부소장), (대만) 3D지재권(산업기술연구소 황국충총무)
(한국) 표준정책(3D표준코디네이트 윤대원), 3D의료영상(조선大병원 문영래교수), 3D교육응용(충북大 류관희교수), 핵심특허동향(에센특허법률社 김삼용변리사) 등
(패널토론) 3D융합기술 특허연계형 표준화 전략방안(강훈종 전자부품硏박사, 충북大 김남교수 등 5국)

□ 금번 아·태지역 '3D표준&특허 포럼'을 계기로 하여 3D융합산업 분야에서 특허 연계형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**체계적**인 **국제표준화**와 **상호협력**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3D융합산업체의 **이익창출**을 위한 **기반**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

○ 정부에서는 3D융합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**우수기술을 발굴**하여 특허 연계 표준을 확보케 함으로써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**을 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**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임

※ 별첨 : 아-태지역 '3D표준&특허 포럼 2012' 참여 전문가

별첨 아-태지역 「3D표준&특허 포럼 2012」 참여 전문가

□ 데이비드 볼린스키 (David Bolinsky)



미국 이머슨사 공동대표이며 영화 '세포의 내부세계'를 제작한 XVIVO사의 공동창업자로서 현재 의료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다. **의료 일러스트레이션** 및 **과학 애니메이션** 분야에 있어서 **독보적인 기술을 보유**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이다. 1974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의료 일러스트레이터 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건 주립대학의 의과대학과 예일대학의 수석 의료 일러스트레이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.

□ 윌리엄 로렌스 게리 (Bill Lawrence Geary, Jr.)



미국 변리사인 그는 법학, 전기공학 및 MBA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**MPEG LA** 사업개발 **부사장**으로서 라이선싱을 위한 **신규 특허풀을 발굴**하고 수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. 다양한 기술의 특허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. MPEG LA에 부임하기 전 그는 미국 워싱턴 소재 삼성전자의 특허자문위원으로 1995 - 2006 동안 전 세계에 걸친 **삼성의 특허 라이선싱과 소송을 담당**했으며 수 십 건의 미국 및 해외특허소송을 지휘하고 수 백 건의 특허 기술이전 협상에 참여했다.

□ 카주오미 수가모토 (Kazuomi Sugamoto)



일본 오사카대학 의과대학원의 교수로서 정형외과 바이오재료과학연구실의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. 그는 **뼈와 관절의 3차원 운동학적 분석의 권위자**로 잘 알려져 있다. 수가모토 교수는 일본 정형외과협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수술 및 외상학 일본 중앙협회와 일본 바이오재료학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. 수가모토 교수 연구팀은 외과수술 중에 있는 인체의 관절의 3차원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획기적인 기법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.

□ 진조 후지노 (Jinzo Fujino)



후지노 교수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**일본 동경과학대학교의 지재권연구대학원의 교수**로 재직 중에 있다. 그는 후쿠시마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. 후지노 교수는 NGB사와 모리슨&포스터 동경사무소에서 기술이전 및 지재권에 대한 해외법률체계의 조사와 해외 법률소송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'표준화 비즈니스,' '특허와 기술표준,' 번역도서로 '미국의 지재권법' 등이 있다.

□ 찰스 첸 빈 (Charles Chen Bin)



중국 3D산업협회의 공공서비스센터의 부소장 겸 수석엔지니어로 재직 중에 있으며 중국 디지털미디어사의 수석편집장이기도 하다. 중국 북방 쟈오통 대학에서 응용전자공학을 전공한 이래 정보통신 및 인터넷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. 그는 중국과학원 산하 하이에너지 연구소의 기술개발부, 컴퓨터월드미디어그룹, IT포털웹사이트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.

□ 황국충 (Kuo-Chung Huang)



대만의 산업기술연구소 (ITRI) 지재권 주임과 대만 '3D 인터랙션 & 디스플레이협회'의 총무를 겸직하고 있다. 세미-타이완의 평판디스플레이 분과위원회 및 ICDM의 3D 분과위원회에서 3D 기술 표준화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다. 현재까지 오토-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및 3D 디스플레이 측정을 포함한 3D 분야에서 19 편의 과학논문을 게재하고 학술발표를 하였으며 미국, 대만, 한국, 일본 및 중국에 3D 기술관련 특허를 16건을 출원하였다.

□ 김형섭 (Hyoungseop Kim)



일본의 큐슈공대의 기계 및 제어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미지 분석을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. 최근에는 복부 CT 이미지의 멀티장기의 자동 세그먼테이션, 흉곽 MDCT 이미지 셋(set)의 시간적 공제(subtraction) 및 CT/MR 이미지 상에 멀티 모달 이미지 등재(registration)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.

□ 문영래 (Young Lae Moon)



조선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문교수는 어깨 관절 및 팔꿈치 관절 분야의 전문가로 유럽 스포츠 학회 GOTS 자문위원, 대한스포츠 의학회 이사, 기술표준원 3D산업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의료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. 또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 정형외과에서 선정한 아시아 대표, '치명적인 폐암에 대한 **삼차원적 진단 요법 개발**'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학술지에 30 여 편의 논문을 게재 및 발표하였다.

□ 김 남 (Nam Kim)



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교수로서 3D산업표준기술연구회 위원장,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3D연구회 회장, 충북 BIT연구중심대학 사업단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충청권 3D산업발전위원회 위원, 3D산업 국가표준코디네이션위원회 위원장, 아태지역 3D 표준 & IP 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3D산업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. 미국 스탠포드대학 방문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(CALTECH)의 방문연구원 경력이 있다.

□ 이상근 (Sang-Geun Lee)



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수석연구관으로 3D 디스플레이, 3D 휴먼팩터 등의 3D산업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. 2010년 3D표준기술연구회를 출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3D산업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전문가팀의 전문위원으로써 아태지역 3D 표준 & IP 포럼 운영위원회 컨비너를 맡고 있다. 현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개별반도체소자 분과 국제간사이며 2009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'IEC 1906 Awards' 수상자이기도 하다.

□ 류관희 (Kwan-Hee Yoo)



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 및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ISO/IEC JTC 1/SC 24 및 Web3D 컨소시엄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. 현재 Web3D 컨소시엄의 이-러닝 SIG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. 한국과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. 현재 3D산업 국가표준코디네이터 3D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이며 아태지역 3D 표준 & IP 포럼 운영위원이다.

□ 김삼용 (Sam-Yong Kim)



에센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로서 비디오코덱 표준(H.264/AVC, HEVC, MMT, 3DVideo, MVC, SVC),무선통신표준 (3GPP LTE/LTE-A, IEEE 802.16m), 홈네트워크표준(DLNA, UPnP, HGI) 분야 표준 및 특허분석 경력을 갖춘 **표준특허 전문가**이다. "Software Patents Worldwide"의 Korea chapter(2008~2010년판, Wolters Kluwer 출판사)를 저술한 바 있다.

□ 윤대원 (Dae Won Yoon)



3D산업 국가표준코디네이터이며 특허법인다래의 기술이사로서 **아태지역 3D 표준 & IP 포럼 운영위원회 컨비너**를 맡고 있다. 하이닉스반도체 개발부장, 전자부품연구원 부품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1999-2002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개별반도체소자 분과 국제간사를 역임했다.